

벤츠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E' 국내 상륙

최대 471km 주행 가능·최고출력 215kW·최대토크 565 Nm 성능 80%까지 충전 32분... 'S-클래스 동일' 최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 (The new EQE)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전기 세단 '더 뉴 EQE'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더 뉴 EQE는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 (The new EQS)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형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EVA2'를 기반으로 개발된 두 번째 모델이다. 벤츠가 국내 수입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 세그먼트에 최초로 선보이는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세단이다.

국내에 최초로 출시되는 모델은 '더 뉴 EQE 350+'다. 우선 외관을 보면 낮고 슬림한 전면부, 측면의 쿠페형 실루엣과 후면의 날렵한 리어 스포일러로 진보적이고 스포티한 비즈니스 세단의 모습을 표현했다.

넓은 표면 처리와 이음새를 줄인 심리스 디자인으로 벤츠의 디자인 철학 '감각적 순수미' (Sensual Purity)를 구현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하나의 활처럼 보이는 '원-보우' (one-bow) 라인과 전면의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 후면의 트렁크와 이어지는 수평 조명 밴드 등 메르세데스-EQ 특유의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된 게 특징이다.

또 더 뉴 EQE의 휠베이스는 3120mm로, 10세대 E-클래스(W213)와 비교해 180mm 길어졌다. 앞좌석 슬더룸과 실내 길이는 각각 27mm, 80mm 늘어나 실내 공간도 넉넉해졌다.

EQE 350+ 외관에는 20인치 5-트윈 스포크 경량 알루미늄 휠과 차량 당 260만 픽셀 이상의 해상도의 디지털 라이트(DIGITAL LIGHT)가 기본 적용됐고, 실내에는 12.3인치 운전석 계기판과 중앙의 세로형 12.8인치 OLED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편의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간결하면서 조형미가 돋보이는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이밖에 88.89kWh 용량의 배터리와 벤츠의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471km 주행이 가능하다. 최고출력 215kW, 최대토크 565 Nm의 성능을 발휘한다.

벤츠가 자체 개발한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는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더 뉴 EQE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대 170kW출력의 급속 충전과 8.8kW

출력의 완속 충전을 지원하며,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32분이 소요된다.

다양한 최신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들도 적용됐다. 최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및 차량 기능을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특히 '제로-레이어' (Zero-layer) 기능은 사용자의 세부 목록 탐색이나 음성 명령 없이도 상황에 따라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접근성이 뛰어난 화면에 배치, 환경 변화와 사용자 행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최적화된다.

전기차에 특화된 '일렉트릭 인텔리전스 내비게이션'이 탑재돼 지형과 주변 온도, 속도, 냉난방 등을 고려해 주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하고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준다.

총 15개의 스피커 및 710W의 출력을 자랑하는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됐고, 국내에서는 지니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무선 손실 고음질 음원의 음악 감상도 가능하다.

또 물리학자와 음향 디자이너, 미디어 디자이너 등 다양한 음향 전문가와 협업해 '실버 웨이브' (Silver Waves)와 '비비드 플럭스' (Vivid Flux) 등 2가지의 특별한 전기차 사운드도 제공한다.

최고 수준의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과 다양한 편의사양도 탑재됐다.

더 뉴 EQE 350+에 탑재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 S-클래스에 탑재된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조향을 제어해 차량을 원래 차선으로 돌리거나 스티어링 휠 진동으로 경고하는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등이다. 증강 현실(AR) 내비게이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도 기본 적용됐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더 뉴 EQE 350+ 모델을 우선 선보인 후 추후 고성능 AMG 모델 및 사륜구동 4매틱(MATIC) 모델 등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더 뉴 EQE350+의 부가세 포함 가격은 1억16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메르세데스-벤츠가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국내에 최초로 출시되는 모델은 '더 뉴 EQE 350+'로, 1회 충전 시 최대 471km 주행이 가능하다.



'더클래스 효성'은 한정판 '메르세데스-벤츠 AMG G 63 효성 에디션'을 출시했다. 왼쪽부터 '미스틱 브라운 브라이트', '데저트 샌드 논 메탈릭', '딥 그린 솔리드 논 메탈릭' 에디션.

더클래스 효성 '벤츠 AMG G 63 효성 에디션' 출시

'데저트 샌드 논 메탈릭 에디션' 등 3종 "독보적 럭셔리 선사"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은 3일 한정판 '메르세데스-벤츠 AMG G 63 효성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AMG G 63 효성 에디션'은 더클래스 효성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출시되는 한정 에디션이다. 더클래스 효성에서 특별히 기획한 4종의 특별한 색상으로 선보인다. 지난해 12월 '메르세데스-AMG G 63 효성 에디션' 10대 한정판을 출시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데저트 샌드 논 메탈릭 에디션',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더하는

'딥 그린 솔리드 논 메탈릭 에디션', 클래식한 편안함과 신비함을 주는 '미스틱 브라운 브라이트 에디션'이 우선 출시된다. 올해 중 '트레버턴 베이지 메탈릭 에디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내장재로는 모두 최고급 소재의 나파 가죽을 배치해 강력한 주행 속에서도 최상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데저트 샌드 논 메탈릭 에디션은 오프 블루와 블랙 색상의 내장재, 딥 그린 논 메탈릭 에디션은 새들 브라운과 블랙 색상 내장재, 미스틱 브라운 브라이트 에디션은 플래티넘 화이트와 블랙의 투톤 내장

재가 적용됐다. 더클래스 효성에서 특별하게 선보이는 이번 에디션은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에 카본 및 다이아미카가 적용돼 한층 더 견고하고 품격 있는 G63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22인치 AMG 5 스포크 단조 휠로 역동적인 포인트를 살려준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독보적인 럭셔리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에디션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클래스 효성을 통해 본인의 개성과 품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그룹 첫 '2022 레드 닷 어워드' 대상

현대차그룹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2022 레드 닷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최고 상인 대상을 포함해 총 3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무인 운송 시스템 콘셉트인 '트레일러 드론' (사진)이 '대상' (Luminary)을 수상했고,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콘셉트카 '세븐'은 '최우수상' (Best of Best)을 받았다. 로보틱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퍼스널 모빌리티 콘셉트 '플러그 앤 드라이브(PnD) 모델'은 '본상' (Winner)을 수상했다.

특히 대상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출품작 중 단 1개를 선정해 부여하는 상으로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만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현대차그룹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트레일러 드론'은 수소연료전지 및 완전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2대의 '아-보기' (e-Bogie) 위에 트레일러가 얹혀 있는 신개념 운송 모빌리티로, 일반 트레일러보다 좁은 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트레일러 드론은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주



행할 수 있고, 콘테이너 트레일러와 별도로 운행할 경우 화물운송과 건설, 소방,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세븐'은 대형 SUV 전기차의 비전을 제시하는 모델로, 전형적인 SUV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플러그 앤 드라이브(PnD) 모델'은 인휠(in-wheel) 모터와 스티어링,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 및 환경인지 센서를 하나로 결합,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EV 멤버스' 캠핑 행사

기아는 전기차 고객 특화 멤버십 프로그램인 '기아 EV 멤버스' (Kia EV Members)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캠핑 행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아는 전북 무주 해밀 캠핑장, 충남 태안 석경이 캠핑장, 강원 양양 오토캠핑장, 경북 영주호 오토캠핑장 등 전국 4개 주요 지역의 캠핑장에서 전기차와 함께 하는 '기아 EV 멤버스 캠프데이'를 진행한다.

기아 및 기아멤버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마이 기아' (MyKia)에서 다음 달 8일까지 행사 참가신청을 받는다. 캠핑은 ▲10월 15-16일 (전북 무주) ▲10월 29-30일 (충남 태안) ▲11월 5-6일 (강원 양양) ▲11월 19-20일 (경북 영주) 총 4회차로 진행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능형 교통 시스템 광주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내비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서비스 지역을 광주와 울산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C-ITS는 주행 중 운전자에게 차량-보행자 신호 잔여 시간 등 주변 교통상황,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교통 신호를 미리 인지하면서 교통사고·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돕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C-ITS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서 C-I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산차 중 가장 빠르다 '더 기아 EV6 GT' 첫 선

최고 시속 260km·제로백 3.5초

기아가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자동차를 선보인다.

기아는 4일부터 고성능 전기차 '더 기아(The Kia) EV6 GT'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EV6 GT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EV6의 고성능 버전으로, EV6 대비 성능을 대폭 높인 모터와 고출력 배터리를 조합해 역대 최고 수준의 동력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사륜구동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는 EV6 GT는 최고출력 270kW, 최대토크 390Nm의 후륜 모터와 최고출력 160kW, 최대토크 350Nm의 전륜 모터를 더해 합산 430kW(585마력)의 최고출력과 740Nm(75.5kgf·m)의 최대토크를 갖췄다.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단 3.5초 만에 시속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폭발적인 가속 성능과 최고속도 260km/h의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EV6 GT에 적용된 고성능 모터의 분당 회전수(rpm)는 최고 2만1000회에 달해 저속에서부터 최고 260km/h까지 모든 속도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400V·800V 멀티 충전 시스템도 적용돼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하다.

EV6 GT에는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강력한 동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양이 대거 적용됐다.

기본 모델보다 크기와 성능을 향상시킨 전륜 모

노블력 4피스톤 캘리퍼는 뛰어난 제동성능을 제공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고속에서도 차량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전륜 스테어링' 및 '후륜 러기지 플로어 보강바' 등 차체를 강화해 민첩한 핸들링 성능을 갖췄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운전을 더 즐겁게 해줄 EV6 GT 전용 주행모드도 탑재했다.

'GT 모드'는 EV6 GT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가속 성능과 역동적인 선회 및 주행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모터, 브레이크, 스티어링, 댐퍼, e-LSD 등을 최적화한다.

특히 GT 모드에서는 회생제동 사용을 극대화하는 RBM(Regenerative Braking Maximization) 기능이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됐다.

이 기능은 일상 주행은 물론 역동적인 주행에서 감속 시 회생제동량을 극대화해 경쟁차 대비 추가적인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 브레이크의 사용량을 줄여준다. 또 전·후륜의 회생제동 제어를 최적화해 제동성능도 높여준다.

기아 최초로 '드리프트(drift) 모드'도 적용됐다. 선회 시 후륜 모터에 최대 구동력을 배분해 차량이 실제 조향 목표보다 안쪽으로 주행하는 현상인 '오버스티어' (over steer)를 유도해 드리프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밖에 전기차로서의 감성적 측면을 만족 시킬 사양들도 반영됐다고 기아는 덧붙였다.

EV6 GT의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및 세제 혜택 후 기준 720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